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투표에서 압도적 1위

전국적 관심사 이낙연·이정현 후보도 민주당 후보에 밀려
10명 중 8명 이상 "반드시 투표할 것"… 투표율 크게 오를 듯

총선 D-9 광주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

광주 광산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4·10 총선에서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가장 관심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탈당해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대표의 대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거물급 인사인 이 대표의 출마와 함께 '친명 VS 반명(반 이재명)' 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정권심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데다, 현 정부와 맞설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면서 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형배 선두 자리 굳건…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와 49.9%포인트차=광산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가상대결에서 민주당 민형배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65.4%로, 민 후보가 현 시점에서 지역구 선두 자리를 점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는 15.5%로,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7.9%와 오차범위(±4.4%p) 내에서 2위를 놓고 경쟁 중이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와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는 각각 3.8%와 1.3%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 후보는 지역별·연령대별·성별·직업별 등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정당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지역별로는 비아·신가·신창동에서 71.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각 연령대별로는 전반적으로 50% 후반대의 지지율을 얻고 있지만, 40대(68.8%)와 50대(75.3%)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이 후보는 70세 이상(28.9%)에서, 첨단1·2동(18.5%)에서, 학생(22.9%)층에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 유권자 10명 중 7명이 민주당 민형배 후보의 낙승을 전망했다. 광산을 선거구 유권자 73.3%는 민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 새로운미래 이낙연(11.2%), 국민의힘 안태욱(5.1%), 진보당 전주연(2.4%), 녹색정의당 김용재(2.3%)의 순이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는 조국혁신당이 절대 우세=4·10 총선을 앞두고 불고 있는 '조국 돌풍'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42.1%)이 더불어민주당연합(30.6%)을 앞섰다.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

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이 조국 돌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18세~29세와 30대에서만 조국혁신당에 비해 높았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40대는 조국혁신당에 65.9%의 지지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49.9%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했고, 여성은 35.1%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여성의 지지율(38.4%)이 남성 지지율(22.9%)보다 높았다. 학생층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14.7%로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49.4%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해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2.6%가, 개혁신당 지지층 27.2%도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답해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혀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지율은 60%대 초반…10명 중 8명 이상이 투표할 것=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63.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9.4%, 새로운미래 6.2%, 개혁신당 6.0%, 진보당 1.9%, 녹색정의당 1.1%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4.7%,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5.8%, 1.0%였다.

지역별로는 민주당이 전 지역에서 60%대의 높은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수안·하남·임곡에서 11.2%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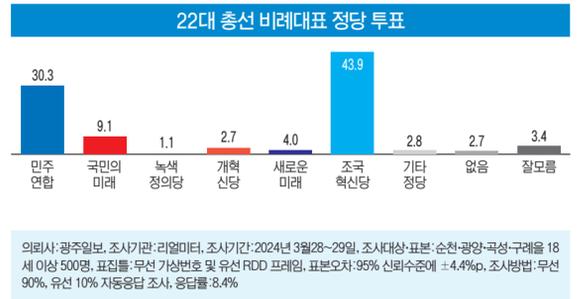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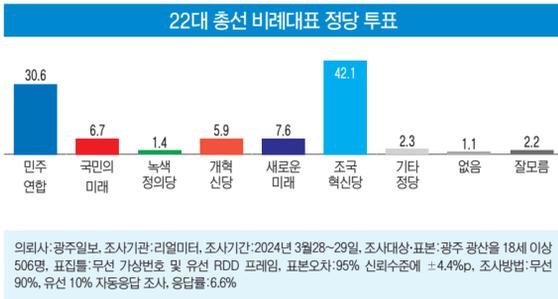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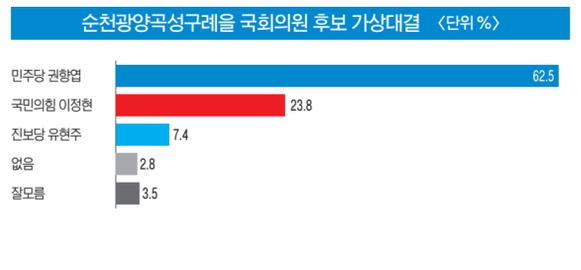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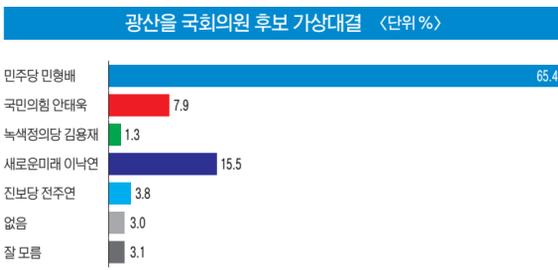
광산을 선거구 유권자 82.7%(반드시 투표 61.2%·가능하면 투표 21.5%)는 이번 4·10 총선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거부 또는 불참' 응답은 16.8%(투표 못 하거나 안함 9.2%·투표 날 기뻐야 않 7.6%)였다. 연령대별로 50대(91.4%)와 60대(95.8%)의 투표 의향이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가정주부(87.3%)와 자영업(97.4%)자의 응답이 높았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8일과 29일 광주 광산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동응답(ARS) 전화조사(무선 90%·유선 10%)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는 전남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현재로서는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민주당 권항엽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2.5%로 나타나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23.8%)보다 앞섰다.

◇민주당 권항엽·국민 이정현, 38.7% 포인트차=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을 앞둔 지난 31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한 오피스텔 무연함에 투표 안내문·선거공보물이 꽂혀 있다.

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순천·광양·곡성 구례를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자동응답(ARS) 전화조사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응답률 8.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권항엽·이정현 후보 간 가상 대결의 격차는 38.7%포인트였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4%였다.

지역별로는 구례(69.5%)에서 권항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광양(63.6%), 순천 해룡(58.9%), 곡성(56.3%)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75.5%), 60대(67.8%), 30대(63.8%) 등에서 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이정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곡성(32.1%)이 가장 높았다. 곡성은 이 후보 고향으로, 이 후보가 지난 2014년 7월 순천·곡성 재·보궐 선거에서 전남

유일의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됐을 당시 70.55%의 득표를 쫓았다. 이 후보는 순천 해룡(24.5%), 광양(22.7%), 구례(19.7%) 등에서도 20%를 오르내리는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40대(31.5%), 70세 이상(31.3%)에서 30%대 지지를 받았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권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들이 69.5%로 가장 많았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8.4%였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 응답은 4.0%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연합 앞서=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고 묻는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3.9%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30.3%)보다 앞섰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구례

(49.0%)가 가장 높았고 순천 해룡(44.9%), 광양(43.0%), 곡성(42.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50.1%), 50대(50.7%), 60대(49.1%)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지지한다는 응답(45.0%)보다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46.4%)이 더 많았고 진보당 지지층의 58.4%, 개혁신당 지지층의 43.2%, 녹색정의당 지지층의 32.4%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5.4%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연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8~29세(36.6%)에서 가장 높았다.

◇투표할 것 87.2%, 민주당 정당 지지도 61.9%=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 주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61.9%로 국민의 힘 14.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어 진보당 5.0%, 개혁신당 3.4%, 새로운미래 2.3%, 녹색정의당 1.8%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구례(67.3%)가 가장 많았고 순천 해룡(65.9%), 광양(60.6%), 곡성(57.5%) 등의 순이었다.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들은 곡성(25.6%)에서 가장 많았다.

4월10일 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64.4%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22.8%였다.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87.2%에 달한 셈이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묻는 질문에서는 53.0%가 잘했다(매우 잘함 29.8%, 잘함 편 23.3%)고 했고 34.4%는 잘못함(매우 잘못 20.6%, 잘못한 편 13.8%)이라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잘함 28.7%(매우 잘함 11.0%, 잘함 편 17.7%), 잘못함 53.1%(매우 잘못함 31.6%, 잘못한 편 21.5%) 등으로 응답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팀,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더스트리계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